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김수*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	기간	2017. 1. 14(토) ~ 2. 10(금)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SLC는 수빅에서도 산골짜기에 위치하였습니다. SLC의 규모는 작지도 크지도 않았습니다. 주변에 편의점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된 곳이기는 하나 아침이 되면 새 지저귀는 소리, 알 수 없는 짐승 울음소리가 들려 정글에 온 듯 설레는 기분이 듭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리딩, 리스닝, 그램머, 단어, 토론, 미디어 등 다양한 수업을 듣습니다. 원어민 선생님이다 보니 리스닝과 스피킹이 크게 늘 수 있었습니다. MMC라고 멀티미디어 수업도 있는데 이 시간에는 여러 팝송과 영화 트레일러, 외국 광고들을 보고 토론합니다. 굉장히 즐거운 수업이지만 영상을 만들어 제출해야하는 조별과제가 있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p> <p>한국에서 영어 문법을 오랫동안 배웠지만 그램머 수업은 영어로 문법을 배워 더욱 어려웠습니다. 또한, 리스닝은 실제 CNN 뉴스를 이용해 학습하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일대일 스피킹 수업을 통하여 선생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리스닝이 수월해집니다.</p> <p>수업 중 아쉬웠던 부분은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나열하고 줄세우기에 바빴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공부에 대한 즐거움보다는 성적 순위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겨 힘들었습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요트투어와 안바야코브 리조트 투어를 했습니다. 먼저, 요트투어는 생각보다는 요트가 작고 오래되어 실망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스노쿨링의 장비</p>

	<p>도 없어 굉장히 열악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미리 스노쿨링 장비를 사오거나 준비를 했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p> <p>안바야코브 리조트는 수빅에서 상위에 꼽히는 고급 리조트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규모가 작고 다양한 액티비티가 없어서 실망하였습니다. 추가 액티비티로는 바나나보트를 탔는데 300페소(7500원)로 저렴한 가격으로 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날씨는 대체적으로 맑고 더웠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SLC 교실과 기숙사에서는 에어컨을 항상 틀기 때문에 꼭 겉옷이나 두꺼운 옷을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대체적으로 안전했으며 필리피노들은 한국인들에게 친절하여 외출하기 편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말도 안되는 바가지 요금을 낼 때도 있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 숙소(<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학교기숙사를 이용했습니다. 10시 통금으로 굉장히 불편했지만 다음날 수업을 생각하면 옳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식당 (<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주로 학교식당에서 밥을 먹었으며 모두 한식이 나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웬만한 기사식당보다 맛있고 먹고 싶은 메뉴를 말하면 가끔 해주시기도 합니다. 정말 좋았습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FB, 택시, 지프니를 이용하였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에는 바가지 요금이 심하기 때문에 가격 협상을 할 때 많은 언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공격적인 영어가 늘어 뿌듯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735,400	출국 전 사전 납부
쇼핑	500,000	필리핀 과자
생활용품	50,000	휴지, 머리끈, 아침 대용 간식
교통비	50,000	지프니, 택시, FB
합계	1,335,4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벌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꼭 벌레퇴치스프레이를 챙기고, 실내 에어컨 때문에 자주 감기에 걸릴 수 있으니 가디건같은 겉옷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수업에서는 리스닝과 스피킹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리스닝 공부를 좀 더 하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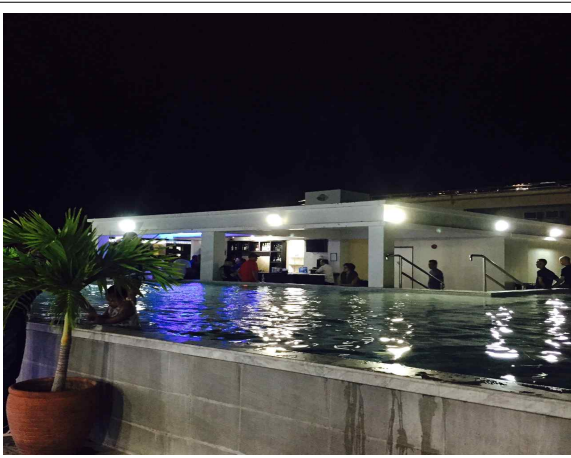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먼저 다른 나라에서 한달 가까이 산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영어도 물론 늘긴 하지만 즐겁게 필리핀 문화를 즐길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또한, 영어에 대한 위축이 줄어들고 영어에 대한 재미와 자신감까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필리핀 선생님들과 너무 많은 정이 들어 헤어짐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도 필리핀 선생님들과 SNS 메시지로 연락하며 꾸준히 영어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얻은 것이 많은 시간이었으며 이 시간을 토대로 앞으로의 학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까마얀 비치</p>	<p>마닐라 쇼핑센터</p>
	
<p>즐거먹던 졸리비</p>	<p>테라스 호텔 수영장에서의 밤 수영</p>
	
<p>Dan선생님의 칭찬이 가득한 칠판</p>	<p>피어 원 레스토랑</p>